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① 총무원장의 역할과 선출 방법

한국불교 미래를 선택한다

오는 9월 3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진다. 총무원장은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최고 행정책임자로,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다. 현대불교 신문은 총무원장 선거 기획보도를 통해 총무원장의 역할과 권한, 선출 제도, 종단 안팎에서 제기되는 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오는 9월 3일 치러진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의 최고 행정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특별취재팀

이번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앞으로 4년간 한국불교의 방향과 종단 운영의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총무원장은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며 종단의 주요 정책을 이끄는 최고 행정책임자다. 승가교육과 포교, 재정과 인사, 문화와 복지 정책을 이끄는 것은 물론 사회 현안에 대한 한국불교의 입장을 대변한다.

총무원장은 중심제로

현재와 같은 총무원장 중심 체제는 여러 차례의 제도 개편을 거쳐 자리잡았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에는 종정이 종단을 대표했다. 종정은 법통의 상징을 넘어 계단 지정, 재산 관리, 주지 임면, 종법 제정까지 담당하는 사실상의 최고 권한자였다.

1975년 종헌 개정으로 총무원장을 종정이 지명하고 중앙종회가 동의하는 방식이 도입됐고, 1977년에는 종무행정 통리권이 총무원장에게 이관됐다. 이어 1981년 종헌 개정을 거치며 종정의 행정권은 대부분 총무원장에게 넘어갔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는 종정이 종단의 신성과 법통을 상징하는 최고 정신적 지도자를 맡고, 총무원장은 종단을 대표하며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종단 최고 행정책임자

종헌 제54조는 총무원장을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고 규정한다.

총무원장의 권한은 크게 종단 대표권과 행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종단 대표로서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종법 집행을 위한 종령을 제정한다. 종단을 대표해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징계의 사면·경감·복권 및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하는 권한도 갖는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총무원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교역직을 임면하고, 종헌·종법에 따라 사찰 주지를 임면한다. 종단과 사찰 재산을 감독하고 주요 사찰의 예산 승인 및 조정권도 행사한다.

또한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예산과 결산, 종책, 종헌·종법 개정안, 주요 재산 처분 등 종단의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3원 통합…더 커진 책임

총무원장의 역할은 지난해 종단 조직 개편으로 한층 확대됐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승가교육은 교육원, 포교는 포교원이 담당하는 '3원 체제'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되면서 교육과 포교 기능이 다시 총무원 중심으로 재편됐다.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왜 간선제 택했나

총무원장 선출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통합종단 초기에는 종정 지명이나 중앙종회 선출 방식이 운영됐지만 특정 문중과 계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94년 종단개혁 이전에는 총무원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종단 운영이 불안정했다.

이에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더 많은 종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각 교구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현재의 간선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별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총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다. 사진은 2017년 열린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현행 제도 시행 30여 년이 지나면서 간선제의 대표성과 민주성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총무원장이 되려면

총무원장 후보는 승납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여기에 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3년 이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또는 위원 경력 등 일정한 종무 경력을 갖춰야 하며 종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후보 등록 전까지 겸직이 금지된 종무직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321명 선거인단의 선택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에서 선출되는 선거인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

각 교구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 사이 교구종회를 열어 본사 주지를 포함한 10명의 선거인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 자격과 선출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 구성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이며,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21일까지 3일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9월 3일에 치러지며, 후보자등록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후보 등록 선언 및 정견 발표, 기자회견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 종책자료집은 32면 이내의 인쇄물 1종만 작성할 수 있으며, 수량은 선거권자의 2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과반 득표해야 당선

투표는 선거인단의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 선거인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곧바로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결선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승납이 많은 후보를, 승납까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당선인은 원로회의 인준을 받은 뒤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비승가적 선거운동 금지

종법은 총무원장 선거를 수행자의 선거답게 치르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는 금품과 향응 제공, 사찰 주지직 약속, 인신공격, 집회 개최, 기부 권유 등 비승가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종무기관 또한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역시 이러한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향후 4년간 한국불교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다.

"사전도, 뉴스도 종교 용어 편향"

7월 7일 조계종 종평위 발표회
국어사전·온라인 뉴스 사례 확인
"공공언어 균형 회복 노력 필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용어 간 언어적 불균형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공공언어 기준을 마련하는 사전과 대중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뉴스가 종교 어휘와 관련해 언어적 불균형을 재생산하고 왜곡된 관념을 심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를 '표준', 타 종교를 '주변'으로 인식하게 하는 언어 구조가 고착되며 불교 언어에 대한 '은밀한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는 7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종교 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사전 '우리말샘'에 등재된 종교 용어의 정의와 예문을 분석해 불평등 사례를 조명했다.

'우리말샘'에 절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로 정의돼 있다. 김 교수는 "절은 불교의 교학·포교·공동체적 성격이 배제된 채 '집'으로만 표현된 반면, 교회는 신앙 양식·공동체·사회적 확장성이 강조된 긍정적 서술로 구성된다"며 "사찰을 '집'이라는 범주에 가두는 것은 불교 공간의 위상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문 구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절은 '초파일 날 절에 가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절을 찾는다'처럼 특정한 날이나 불안할 때 찾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교회는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처럼 신앙 활동을 하는 일상적 공간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한적·개인적 차원으로 절을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예문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사전은 언어 현실을 기록하는 중립적 장치가 아니라 특정 종교를 표준으로 삼아 타 종교를 주변화하는 담론적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일상 언어 속 미세 차별은 종교 간 위계를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하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언어 개혁을 통해 종교 간 위계를 허물고 언어의 포용성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편향은 온라인 뉴스에서도 확인됐다. 심태은 한경국립대 브라이트칼리지 교육연구소 조교수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를 활용해 최근 1년간 종교 관련 어휘의 사용 양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도'는 하나님·목사와, '예배'는 교회·찬양·청년과, '은혜'는 하나님·구원 등 기독교 맥락과 결부돼 사용됐으며, 비교적 불교적 의미를 유지한 '수행' 역시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표현으로만 활용됐다. 심 교수는 "온라인 뉴스도 기독교를 표준으로 하는 언어 체계를 재생산하고 있다"며 "다종교 사회 속 문화적 소통과 공존을 위해 각 종교의 고유한 언어와 서사가 동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평위는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 용어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종평위는 "학계와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와 협력해 종교 언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7월 7일 '종교 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 02일 도착
▶ 동참금 : 299만원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6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90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출발일 : 9월04일~9월08일(5일간)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24일 출발~12월03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 7대 성지순례, 아잔타석굴 13일
출발일 : 10월20일~11월01일(13일간)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